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18년 1월 후원미사는 15일, 2월 후원미사는 19일, 3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1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4,065,650	전월이월금	2,081,580
지 로	1,954,570	우리은행	9,487,000
국민은행	4,859,000	하나은행	1,231,000
조흥은행	105,000	신한은행	1,145,000
외환은행	467,500	제일은행	165,000
농 협	1,475,000	기업은행	495,000
우 체 국	50,000	지정기탁	55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0,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48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55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18,860,000	잔액(이월금)	5,205,65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www.seoulmigrant.net

2017. 12 / 제18호

펴낸날 2017. 12. 18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후원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일 년을 주님의 성탄과 함께
거듭장입니다. 한해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고맙
게요. 감사함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낯선 땅에서 생활한 아들이 고향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제 주님의 탄생은 기뻐하며. 사랑이 이루어진
여기 우리와 함께 행복하길 있는 내일도 꿈꿔봅니다.
다시한번 성탄을 주님과 보듬어 함께 축하합니다!

이주사목위원회 남창현 T.아미초은 문선.

문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보여준 관심과 도움으로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은총이 후원자님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Fr. 김 평안 마르코 -

후원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

Jesus is the most wonderful gift
God has given to humanity. He was
born of a human being to share our
humanity so that He can also share with
us His divinity. Let Jesus be born anew
in our hearts so that the spirit of Christmas
PEACE, LOVE, JOY and SHARING may
reign in our lives.

MALISAYANG PASKO SA NYONG
LAHAT!

- FR. ALFIE, MSP-
SFCC CHAPLAIN ☺

종정하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생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날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저희 베르나르 집 가족들로 따뜻하고
노박하게 위로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
니다.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매일의 기로 안에서 크리스마스날과
가족들을 기뻐합니다.

주님 피를 건강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복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주님 모시
기원합니다.

— 베르나르 집 드림 —

공지사항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소식*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주교들에게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는 교회, 사회의 변두리로 나
아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은 사회적 약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연대하여 '길을 나서
사람들 곁에 들어가 동행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합
니다. 12월 28일에는 이주사목위원회의 담당으로 이주민과 난민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 소식*

2017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입금하신 기부금을 확인하여 2018년 1월초에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2017년 안
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려는 분이나 가족명의로 변경하여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후원회원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우
선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문의: 02-924-9970/1).

Kính Chúc Quý Anh Chị Em
Vui Hưởng một Mùa Giáng Sinh
An Lành & một Năm Mới Thịnh Vượng

하오신부

후원회 가족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자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후원회 가족분들 덕분에

저희와 생활하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성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벧 집 -

* 아기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을 담은 마음으로 저희에게 사랑과 광명을
보여주시는 이주사목위원회의 모든 회원님을 가정
아기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후원자, 회원님을 덕분에 저희들은
2017년, 한 해도 이주민들 함께 웃고, 희망할
수 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다"

임미영목사, 김 양정자 수녀님.

위원회 소식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 주관으로 "인종차별 금지가 이주민 정책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위한 성명서발표가 12월 12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성명서 본문을 올려드
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우리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국내 이주민들의 현실이 차별과 착취로부터 벗어나있지
않은 것을 주목하며,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
음은 이미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5년 UN특별보고관은 국내 조사를 통
한 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이동자유 보장과 이주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농업 이주노동자에 초과근로수당 지급, 선원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철폐도 권고했다.(중략)

결혼이주여성들은 69.1%가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여성 이주노동자의
10.7%는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불안정한 체류자격, 사회로부터
의 고립, 인권교육 부재 등으로 인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이주민의 고통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태어나거나 유영아기에 입국하여 언어적 정서적 정체성을 한국인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미등록 상태라는 이유로 체류의 권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인도주의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의 경우 자녀초청이 가능하지만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의 경우 국내에서는 4.5%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 평균치인 37%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
다. 난민 인정자들은 언어적 장벽과 구직난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책이 절
실하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한 기나긴 시간동안 불안에 떨어야 한다. (중략)

2017년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충남지역에는 인권조례가 이슬람을 조장한다며 노골적으로 타
종교를 능멸하고 혐오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국제 기준으로
는 처벌 대상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
다. 이를 통해 UN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 이주민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만들어져
야 한다. 이미 알려진 기본계획의 기초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와 다를 바 없으며,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과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셋째, 이주민 정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권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UN의 권고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외면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 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이
다.(중략)

우리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인종차별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한 UN의 정신이 우리의 종교적 양심과 책임에 전적
으로 부합하는 것임을 밝히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에 대해 분명히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12월 12일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